

# 북스

Books

## '교과서 한국문학' 시리즈 20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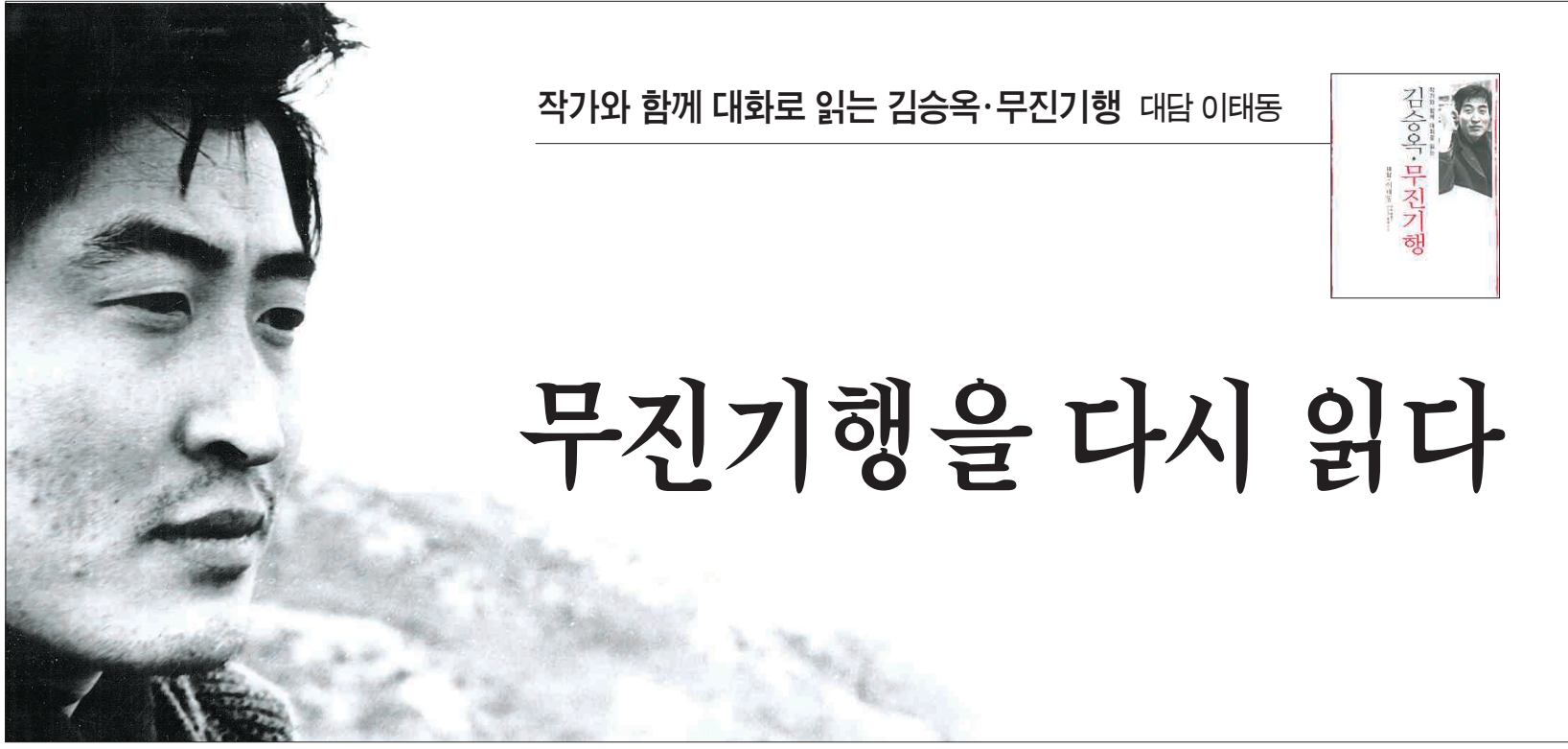


'교과서 한국문학' 시리즈의 처음으로 이창준과 박완서편이 각각 10권씩 모두 20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시리즈로 엮은 것은 통합 논술에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이다. 조남현·방민호 교수 등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진이 엮었다. 작가 황석영, 박경리, 김주영, 윤홍길, 이문구, 조정래, 김원일씨의 시리즈도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책을 읽는 청소년들이 '독해-추론-지식 종합-새로운 관점 도출'로 이어지는 4단계 사고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알고 가자, 논술거리', '한눈에 작품 살펴보기', '짚고 가자, 논술 해설' 등 코너가 지루하지 않게 한다.

〈휴이남·각 권 8천500원〉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김승옥·무진기행 대담 이태동



## 무진기행을 다시 읽다

순천 출신 소설가 김승옥씨의 '무진기행(霧津紀行)'(1964년)은 단편소설임에도 한국 문학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씨는 1950년대까지 작가들을 지배하던 엄숙주의와 한국전쟁의 무기력증을 뛰어넘는 '1960년대식' 글쓰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무진기행'은 한국 소설문학사에 정전(正典)으로 오를 만큼 현대 소설의 고전으로 인정된다. 소설가 김훈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글쓰는 직업에 가졌던 김훈씨의 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김승옥이라는 '젊은 놈'의 출현에 연일 경악의 함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는 그 경악의 함성에는 두려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고 말한다.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김승옥·무진기행'은 상징과 미학적 감수성으로 가득한 '무진기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학사적 의의를 깨닫게 한다. 책은 '무진기행' 전문, 문학평론가 이태동(서강대 명예교수)씨가 지난 2월 가졌던 김씨와의 대담, 소설가 김훈씨가 한국일보 기자시절 김씨와 함께 작품의

배경인 순천을 다녀온 뒤 썼던 글, 이씨의 평론, 김씨의 자전적 에세이, 연보 및 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후유증으로 나타난 실어증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언어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온전치 않은 상태다. 이씨와의 대담은 김씨의 제자가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필답을 나누기도 했다.

'무진기행'의 주인공 '나(윤희중)'는 제약회사의 전무가 되기에 앞서 아내의 권유로 고향인 무진을 찾는다. 안개 외엔 내세울 것이 없는 곳, 무진은 '나'에게 '실제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나 "새 출발이 필요할 때" 찾은 곳이다. 세무사장이 된 동창 '조'의 집을 찾은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주인공의 모교 '무진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하인숙'을 만나게 된다.

'하인숙'은 '나'와 '조' 일행의 술자리를 빠져나와 갈릴길에서 발길이 무서우니 조금 더 데려다달라고 말한다. 이 때 '나'는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생애 속에 끼어들 것을 느꼈다." 다음날

만난 이들은 '나'가 4년 전 폐병을 고치려 머물렀던 바닷가 하숙집을 찾아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 성관계를 맺는다.

소설은 '나'의 부인에게 전보가 도착해 사흘 만에 상경하면서 끝난다. 주인공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하인숙'에게 쓴 뒤 몇 번을 읽어보고 찢어버린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진을 떠난다.

43년 전에 쓰인 이 소설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고립된 자기세계를 갖고 있는 과거의 나와 교차하면서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아 탐색의 시간"을 갖고 있는 주인공 윤희중이 도시 생활의 고단함을 지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 무수한 상징들에 대한 저자의 상세한 설명이 대담에 녹아 있다.

한편 순천시는 국·시비 20여억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된 순천시 대대동 대대포구 인근에 '무진기행문학관'을 지을 예정이다.

〈지식다미·9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루스서 우즈까지... 스포츠 스타들의 성공 비결

신화가 된 사람들 - 경쟁에서 이기는 10가지 법칙 진 랜덤 지음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1인자라는 위치보다 더 갖춰야 하는 인생역정이 있다. 불굴의 정신으로 좌절과 장애를 극복한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다방면에 걸쳐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진 랜덤(플로리다 국립대) 교수가 쓴 '신화가 된 사람들-경쟁에서 이기는 10가지 법칙'은 '진실이 된' 스포츠 스타 10명의 성공 비결을 다룬 책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스타는 베이스 루스(야구), 윌마 루돌프(육상), 펠레(축구), 무하마드 알리(권투),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테니스), 그렉 루가니스(다이빙), 랜스 암스트롱(사이클), 웨인 그레츠키(아이스하키), 마이클 조던(농구), 타이거 우즈(골프) 등 10명.

저자는 이들 스타들의 성장 과정과 승패의 원인, 최고 선수로 등극하기까지 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기는 법 10가지를 추출했다.

이들의 삶에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 모두 실패를 경험했고, 선전적 재질보다는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뤘다.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은 '스포츠나 사업 또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성공은 신체가 아니라 정신과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일생 동안 714개의 훈련을 친 야구황제 베이브 루스의 성공배경은 '크게 이기려면 크게 실패할 준비를 하라'는 좌우명이었다. 타석에서 훈련만을 노렸던 베이브 루스는 '훈련왕'

과 '삼진왕'이라는 두 개의 별명을 얻었지만 안타 위주 야구의 패러다임을 호쾌한 장타로 바꾼 인물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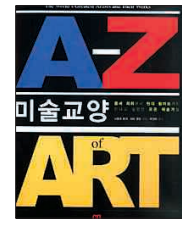
육상스타 윌마 루돌프는 네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영영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코에서 태어난 나브라틸로바는 자유를 얻기 위해 가족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루이 암스트롱은 암으로 두 차례 대수술을 거친 후에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7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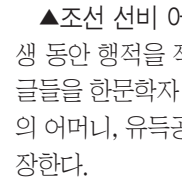
저자는 10개 항목으로 나눠 스타들의 성공비결을 요약한 뒤 '위험감수에 대한 테스트' 등 독자들을 위한 자기진단 문항을 곁들여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말·글빛남·1만6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술교양=세계적 미술가 386명을 영어 알파벳 순으로 대표작의 원색 도판과 함께 실은 '미술 사전'. 중세에서 현대까지 거의 모든 미술가를 다루다 보니 제한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단점. 한국인으로는 백남준씨와 작품 '북극성'이 실렸다. 〈거름·2만2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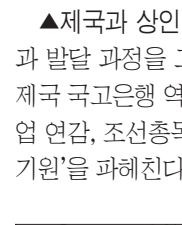
▲조선 선비 어머니를 그리다. 사진(思攄)=사랑한 사람의 일생 동안 행적을 적은 '행장(行狀)' 가운데 어머니를 그리고 있는 글들을 한문학자 정송열씨가 엮어 모은 것. '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어머니, 유득공의 어머니 등 14명의 사대부 가문 여인들이 등장한다. 〈서해문집·1만1천900원〉



▲벌레 이야기=이창동 감독의 최근작 '밀양'의 원작 소설. 작가 이창준씨는 이번 책의 출간에 맞춰 서문을 다시 썼다. 책 사이사이에 최규석씨의 그림을 덧붙였다. 아이 유괴와 살인을 소재로 용서와 구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묻는다. 〈열림원·6천800원〉



▲사람의 아들 붓다(전 2권)=인도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디팍 초프라가 붓다의 삶을 소설로 재탄생시켰다. 저자는 왕좌와 부귀를 버리고 자신의 소명을 찾아 떠나는 붓다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붓다'를 그려냈다. 〈푸르메·각 권 1만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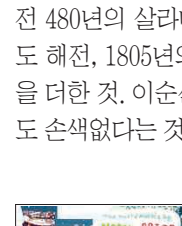
▲제국과 상인=1896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 자본주의 탄생과 발달 과정을 그린 책. 역사문제연구소 이승렬 부소장은 대한제국 국고은행 역할을 했던 대한전일은행의 회계자료와 각종 상업 연감, 조선총독부 문건 등을 상세히 분석해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을 파헤친다. 〈역사비평사·2만8천원〉



▲나를 미치게 하는 정원(이진만)은 관철아=안락한 정원을 갖고 싶어했던 중년 남성의 원에 회고록. 평범한 회사원인 윌리엄 알렉산더는 집 앞 200㎡ 크기의 땅에 채소밭과 과수원을 일군다. 정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맛깔스런 글로 표현된다. 〈바다출판사·9천800원〉



▲침대=등단 10년을 맞은 소설가 김승희의 두번째 소설집. 주로 '잔혹', '그로테스크'로 설명되는 그의 소설들은 시적 소설쓰기의 전범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에도 여전히 저자는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건조한 문체로 '잔혹'을 이야기 한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세계 4대해전=작가 윤지강씨가 정한 세계 4대해전은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 1588년의 칼레 해전, 1592년의 한산도 해전, 1805년의 트라팔가 해전. 세계 3대해전에 한산도 해전을 더한 것.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이 세계적 해전과 비교해도 손색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느낌이있는책·1만4천800원〉



▲노벨상이 만든 세상-물리학 I·II=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개정증보판. 화학, 생리·의학 분야까지 총 6권이 출간될 예정. 최근 초판이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출간돼 화제가 됐다. 이종호 박사는 일상의 익숙한 소재를 통해 노벨상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나무의꿈·각 권 1만2천원〉

**KÄ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클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RC 3000 로봇청소기, K 56 전기 빗자루, VR 6100 진공청소기, SC 92 소형 스타일링청소기, SC 1122 디럭스 스타일링청소기, SC 1502 디럭스 스타일링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 등받이 각도 조절.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 1.2층 : 명품가구 ● 3~5층 : 엔틱가구 ● 지하 : 50% 세일가구

www.홍스페이스.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역)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